

# 병원계의 새해 목소리



글·김 상 우 |  
본회총무위원장·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

새해 첫 호로 발간된 국내 의료계 전문신문에 종합병원장님들과 전공의협의회장이 새해를 맞아 새 대통령과 새로 구성되는 정부에 바라는 글이 실렸기에 읽어 보았다. 종합병원장님들의 공통된 바램은 병원 경영이 정상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전공의들이 바라는 바는 열악한 수련교육환경의 개선에 관한 것이었다.

## 한결같은 경영정상화 염원

종합병원장님들이 지면을 통하여 한결같이 말하는 '병원경영의 정상화에 대한 바램'은 바꾸어 말하면 병원의 수지상태가 악화되어 현재 정상 경영이 아닌 무리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우리나라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된 이후 계속

된 저수가 의료정책 때문에 개원의나 종합병원이나 오랫동안 힘든 경영이 지속되어 만성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였는데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결정되고 실시된 의약분업은 지친 말에 짐을 더해주는 격이 되어버렸다.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난해에는 다른 해보다 많은 병원들이 폐업을 하였고 그중에는 큰 종합병원도 둘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고 무리한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본보기라 하겠다. 도산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다른 병원들의 사정도 목숨만 붙어있지 도산한 병원과 다름이 없는 듯 하다. 필자가 작년에 만난 종합병원장들은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도산 직전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입술이 상하면 이가 시리다.(脣亡齒寒)" 라는 옛말이 있다. 우리나라 의료의 중추인 종합병원들이 경영상 적자로 인하여 도산되어 없어지거나 의료의 질을 낮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일전 우리나라 3차의료기관의 병원경영상황에 관하여 모 연구회에서 연구하여 발표하는 것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2001년 의료기관서비스평가 때에 40여 곳의 3차 의료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었으며, 병원경영 실적을 포함하여 여러 분야를 세밀히 조사한 것이었다. 조사한 40여개의 종합전문병원들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이름을 영문 약자로만 표기하고 있었지만 대략 어느 병원인지를 짐작 할 수는 있었다. 경영실적 분야에서는 4개의 병원만이 (2개 병원이었는지도 모른다. 기억

이 확실치는 않다) 흑자를 보이고 있었다. 건강보험수가가 원가에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흑자를 낼 수 있는지가 궁금하던 차 어느 병원장님이 흑자로 발표된 종합전문병원으로 짐작되는 병원장님께 '이 흑자의 결과는 순수 진료수입에서 흑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료 외 수입을 합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다. 그 병원장님은 '순수 진료 수익은 적자지만 진료 외 수익을 합하니 흑자가 된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셨다. 진료 외 수입이란 주로 영안실, 음식점, 매점 등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이다. 지금의 현실은 종합병원들이 이런 수입에 매달려야만 적자폭을 줄이거나 간신히 생존 할 수 있다. 실제로 새로 개원하였거나 개원하려고 준비하는 종합병원들은 경쟁적으로 영안실을 크고 호화롭게 만들고 있으며 기존 종합병원들도 이미 사용하고 있던 영안실을 더 크고 좋게 개보수하고 확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여건의 병원들은 도산으로 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대학병원인 3차 의료기관은 진료, 교육, 연구의 기능을 계속해야한다. 정상적인 병원경영으로 대학병원이 교육, 연구에 재투자할 정도의 진료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 의료가 발전하고 한국의료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적자인 상황에서 교육과 연구를 무엇으로 지속 시킬 수 있으며 진료의 질을 유지 할 수 있단 말인가? 의료계와 관련된 정부 부처와 의료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시민단체들은 병원계가 원가에 못 미치는 보험진료의 수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병원경영의 투명성"을 먼저 보여 달라고 판에 박힌 답을 한다. 건강보험

실시와 의약분업으로 대부분의 수입이 유리알처럼 드러난 지금 투명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더 보여 주어야 하는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이 다같이 호소하는 어려움이라면 우선 인정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후에 투명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투명하도록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새해에는 병원회계준칙에 의거하여 병원의 투명성을 높인다고 하니 이제 투명성 타령은 그만 해주었으면 한다.

### 병원경영 개선 위한 수가체계 개편, 최신 진료 신속한 보험인정

노무현 차기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공약을 통해 '병원계가 처한 어려움을 알고 있고 병원중심의 의료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병원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의료수가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병원들의 현실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는지 병원수가를 조정해주었으나 이 정도로 쓰러져가는 병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재정 때문에 당분간 더 이상의 병원수가 인상이 곤란하다면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병원경영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병원장님들께서 새해 신문에 게재한 글을 보면 OECD 평균료를 수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조정, 병원의 외래조제실 허용,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의 폐지와 고시가제로의 전환 등을 통하여 병원경영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당장 하기는 곤란하더라도 현재의 불합리한 진료수가의 개선은 조속한 시일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부분이며 최신 진료의 빠른 보험인정도 우리나라 의료를 발전시키고 병원경영에 도움을 줄 것이다.

전공의들이 바라는 수련교육환경의 개선은 요구 이전에 병원당국이나 국가가 당연히 해결해주어야 할 사안이다. 수련의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에 수련의 제도가 도입된 이래 시시때때로 터져 나왔던 문제이므로 병원이나 정부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수련의들의 지위가 한시적인 때문인지 문제가 터져 나올 때 이외에는 관심 밖으로 밀려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세월이 갈수록 수련환경이 더 악화되는 가운데 수련의들을 진료 노동에만 몰아내는 듯 하다. 우리나라에서 밤의 중환자를 지키며 말없이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의료는 현재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전공의는 우리나라의 의료와 의료발전을 책임질 소중한 분들이다. 이분들이 근무하는 병원의 수련환경은 대부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악하다. 과도한 진료업무에다 쉴 곳조차 마땅치 않거나 열악한 당직실, 실질 근무시간으로 계산해보면 나라에서 정한 기본임금도 못되는 급료 등등. 이보다 더한 3D 업종이 있을까? 4, 5년의 한정된 기간만 근무하는 사람들이라고, 또 노동삼권을 주장할 입장도 못되는 사람들이라고, 병원 당국이나 국가가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에 눈을 질끈 감고 소외시키는 것은 아닌가?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미 지치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몽롱해진 수련의의 머리에 새로운 의학지식과 기술이 들어갈 공간이 있을까?

수련의들을 수련교육보다는 값싼 의료노동자로 취급하여 진료현장으로만 모는 기성 선배의사들의 사고도 고쳐져야 할 것이다. 지금의 종합병원 형편이 적자이므로 수련의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여력이 없다면 국가라도 우리나라 의료의 장래를 위해서 이들의 교육비를 대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수련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 때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하고, 장차 세계화 시대에 당당히 선진 의료의 대열에 서서 높아진 의료의 질로 국민에게 보답할 수 있을 것이다. 2003